

미디어 융합과 IPTV 정책 및 시장 동향

Media Convergence, IPTV Policy and Market

u-IT 컨버전스 산업 및 기술 전망 특집

고순주 (S.J. Koh)

미디어경제연구팀 팀장

박영준 (Y.J. Park)

미디어경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목 차

- I . 미디어 융합과 IPTV
- II . IPTV 정책의 성립과 과제
- III . IPTV 시장 현황
- IV . IPTV의 경제적 파급효과
- V . 맺음말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4월 18일 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PTV 상용화를 위한 기본 틀이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과 허가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2008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규제정책이나 IPTV의 성장에 비해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IPTV를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융합 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IPTV 가입자는 496만 가구, 매출액은 1조 2,87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0조 1,750억 원, 고용효과는 5만 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IPTV가 미디어 융합을 주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미디어 융합을 촉진·발전시킬 것이다. 4G와 NGN 기반의 신규서비스, Web 2.0 TV 기반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임베디드 미디어 서비스 등 향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과 규제프레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I. 미디어 융합과 IPTV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던 미디어 분야에서의 융합(convergence)은 2002년 EU의 신통신규제 패키지(new telecom regulatory package)를 시작으로 제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여 이미 27개 EU 회원국이 신통신규제 패키지를 국내법화 하여 집행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통신법 개정을 통해 방송과 통신의 상호진입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0조의 규제면제 조항, 제11조의 규제개혁 조항을 통해 미디어 환경변화에 신속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가능하게 한 바 있으며,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면허제도(지역 프랜차이즈)와 면허 부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역시 기존의 신규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개별법을 제정하여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디어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All IP화에 대응해 미디어 전반에 걸친 새로운 경쟁규칙 정립을 위한 로드맵인 「신경쟁촉진프로그램 2010」을 제정하였고[1], 최근에는 방송과 통신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정보통신 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있다[2].

이러한 미디어융합의 중심에는 IPTV가 있다. 방송과 통신과 관련된 네트워크, 단말기, 서비스, 콘텐츠 통합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IPTV는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IPTV가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의 시범서비스로 선정된 이후 미디어 융합의 핵이 되어 시장과 정책의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방송과 통신에 대한 기본 규제철학의 차이, 역사적인 분리발전 배경, 고착화된 이해관계, 급변하는 정치환경 등으로 인해 제도화는 그리 쉽지 않았다.

EU, 미국, 일본 등에서 초기 정립된 미디어 융합 정책의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재개선하고,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전역,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반

으로 IPTV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7일 임시적인 성격을 가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부족하지만 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법은 4년 여를 끌어온 IPTV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에서 미디어 융합정책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는 IPTV를 포함한 좀더 포괄적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IPTV 제도형성 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시장의 발전을 전망함으로써 좀더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융합으로 관심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IPTV 정책의 성립과 과제

1. IPTV 법률의 제정

IPTV 서비스의 상용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둘러싸고 4년 여 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IPTV 법안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일명 IPTV 법률)의 이름으로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동 법안이 성립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제도권으로 주도권이 넘어온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2006년 7월 통합규제기관 설립을 위한 임시준비기구로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설립되었고, 융추위는 2006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제정안’을 국무총리에 제출한 후, 차기 과제로서 IPTV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7년 4월 융추위가 IPTV 규제에 대해 합의된 위원회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권한을 2007년 3월 구성된 방송통신특별위원회로 넘김에 따라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제3의 특별법 등 다양한 의원입법이 발의되게 되었다.

〈표 1〉 의원발의 IPTV 법안 추진 과정

일정	주요 내용
2005. 10. 26.	- 유승희 의원 정보미디어사업법안 발의
2005. 12. 1.	- 김재홍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2007. 4.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IPTV 법안 다수안·소수안 확정
2007. 6.	- 홍창선·손봉숙·서상기 등 의원 IPTV 법안 발의
2007. 7.	- 이광철 의원, 지병문 의원 IPTV 법안 발의 -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IPTV 법안심사 개시
2007. 11. 15.	-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IPTV 쟁점 합의
2007. 11. 23.	-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 의결
2007. 12. 28.	- 국회 본회의 의결

결국 IPTV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7개안이 제시되었는데, 기존에 제안되었던 유승희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과 김재홍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외에 홍창선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 손봉숙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서상기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 이광철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지병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IPTV 관련 법률안의 추진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은 2005년 10월 26일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은 하였으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7년 7월 4일에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7월 13일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김재홍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대한 대항법률로서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청원에 의해 발의되어 2005년 12월 1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동 법률안 또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2007년 7월 4일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회

부되고, 7월 23일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또한 홍창선 의원, 서상기 의원, 손봉숙 의원 등이 제안한 법률안도 각각 2007년 7월 9일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한편 이광철 의원 등이 제안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은 2007년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지병문 의원 등이 제안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2007년 7월 20일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9월 14일 제2차 법률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에 따라 IPTV 관련 7개 법률은 모두 9월 14일 개최된 법률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총 6차(제4차 9월 28일, 제5차 10월 15일, 제6차 11월 6일, 제7차 11월 15일, 제8차 11월 19일)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되었다.

2007년 11월 20일 제9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제12차 방송통신특별위원회(2007.11.2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1월 23일 개최된 제13차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는 IPTV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에 대해 이재웅 의원 외 1인의 번안동의 요청으로 번안 의결하였다.

동 법률안은 대통령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2008년으로 본회의 의결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12월 28일 극적으로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2. IPTV 법률의 주요 내용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대체안으로 성립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은 세계적으로 IPTV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IPTV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로도 입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의 신속한 시행과 적정한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또한 7개의 관련 법률을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하나의 법률로 하여 성립된 것이기도 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첫째, 유선전기통신시설비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으로 정의한다.

둘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하고,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넷째, 일간신문·뉴스통신, 외국자본 등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업 겸영을 제한한다.

다섯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의 공정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장점유율 제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이용자 보호,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다.

여섯째,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콘텐츠의 제작·공급 사업을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거나 종합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일곱째, 정부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의 공정경쟁과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여덟째, 방송위원회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전송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홉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송법」의 채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열번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열한번째,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정지, 등록 또는 승인의 취소,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권한은 방송과 통신을 통합한 기구가 출범할 때까지 존속한다.

3. IPTV 규제 과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2008년 4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동법시행령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지침 등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관계기관의 실무급에서 시행령과 허가지침에 대한 준비를 진행중에 있으나,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시행령과 허가지침의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추천 및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유

료방송 시장 전체와의 조화, 심사기준, 허가사업자 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둘째,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IPTV 법률에 이미 시장점유율 규제를 포함시켰고,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미 관련 규제가 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진입 초기에 경쟁상황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설비보유 사업자와 설비미보유 사업자간에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 거절 및 중단 사유, 설비제공 방법과 절차, 이용대가 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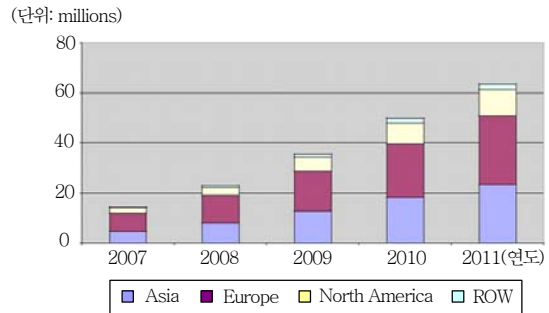
이 외에도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 콘텐츠 동등접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III. IPTV 시장 현황

1. 세계 IPTV 시장 현황

MRG가 IPTV Global Forecast[4]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전세계 IPTV 가입자는 2007년 1,430만 명에서 2011년 6,360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5%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1년까지는 유럽이 IPTV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Free, Orange, Neuf Cegetel 등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Free는 2007년 상반기에 파리에서 FTTH 기반의 TPS 서비스를 기존 DSL과 동일한 월 29.99유로에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7년 6월 말 현재 26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Orange TV는 2007년



<자료>: MRG, Inc., 2007.

(그림 1) Global IPTV Subscriber Forecast

12월 말 현재 114만 9천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Neuf Cegetel은 3개의 HD 채널을 포함하여 69개 채널을 통해 VOD를 추가하였으며, 2007년 12월 말 현재 75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2006년 말에 서비스를 개시한 DT는 2007년 12월 말 현재 116,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2007년 말까지 IPTV가 가능한 DSL 서비스 커버리지를 1700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BT Vision, Telefonica, Telecom Austria, Swisscom, TeliaSonera 등의 사업자들과 Croatia, Czech Republic, Estonia, Poland, Slovakia, Slovenia 등의 동유럽 국가들이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IPTV가 향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과 차이나 네트콤(China Netcom)에 수십만 명이 가입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도 서비스 시험을 거쳐 제공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는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180만 가구로 작아 IPTV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지만 잠재력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세계 제2 IPTV 사업자인 홍콩의 PCCW는 시장 포화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은 IP 멀티캐스에 의한 디지털지상파 재전송과 저작권 등 규제문제가 해결되어 NTT 계열 사업자와 Softbank Yahoo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IPTV 법률 제정으로 2008년에 본격적인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2007년에 IPTV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표 2〉 세계 주요 사업자의 가입자 수 현황

지역	사업자	서비스명	가입자	비고
미국	Verizon	FiOSTV	94만 명	2007년 12월 말
	AT&T	U-Verse TV	23만 명	2007년 12월 말
	MTS	MTS TV	159,549명	2007년 6월 말
유럽	FT	Orange TV	114만 9천 명	2007년 12월 말
	Free	Free	262만 명	2007년 6월 말
	Neuf Cegetel	Neuf TV	75만 명	2007년 12월 말
	Fastweb	Fastweb TV	16만 명	2007년 3월 말
	BT	BT Vision	12만 명	2007년 12월 말
	DT	T-Home	11만 6천 명	2007년 12월 말
	Telecom Italia	Alice HomeTV	3만 1천 명	2006년 12월 말
	Swisscom	Bluewin TV	6만 명	2007년 9월 말
	Telefonica	Imagenio	50만 명	2007년 12월 말
	Telefonica(체코)	O2 TV	8만 명	2007년 12월 말
	Belgacom	BelgacomTV	191,348명	2007년 6월 말
	아시아	On Demand TV	On Demand TV	10만 명
ChungHwaTelecom		MOD	35만 명	2007년 9월 말
PCCW		Now TV	81만 8천 명	2007년 6월 말
China			84만 6천 명	2007년 12월 말

미국은 Verizon의 FTTP FiOS System이 예상보다 빠르게 구축되어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 있으며, 적어도 가입자 5,000명을 확보하고 있는 독립계 통신사업자들(SureWest, Consolidated Communications, Pioneer Telephone, Iowa Network Services 등 약 14개 사업자)이 IPTV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SaskTel Manitoba Telecom Services가 2007년 초까지 약 17만 5천 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Telus가 2006년 말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약 1만 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Bell Canada는 VDSL 기반의 IPTV 서비스를 통해 Toronto에서 약 1만 8천 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표 2〉 참조).

MRG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은 2011년까지 가입자 수 측면에서 여전히 제1의 IPTV 시장이 될 것이지만, 아시아가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 2012~2013년이면 가입자 수에 있어서 아시아가 유럽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내 IPTV 시장 현황

국내에서는 2006년 7월에 하나로텔레콤이 VOD 중심의 TV 포털서비스인 ‘하나TV’를 출시하면서 실시간방송을 제외한 pre-IPTV 서비스가 선보이기 시작했다. ‘하나TV’는 7만 여 편 이상의 영화, 드라마, 교육, 생활 등 VOD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2007년 12월 말 현재 80만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성공적인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 2.0’을 발표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수급을 위하여 월트디즈니 TV를 비롯, 소니픽처스,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세계 주요 영화제작사 및 방송제작사와의 제휴도 강화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2008년까지 1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T도 2007년 9월에 ‘메가TV’라는 pre-IPTV¹⁾

1) KT의 ‘MegaTV’는 이전에도 제공되었으나, pre-IPTV라는 관점에서는 2007년 9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서비스를 출시하여 2007년 말 현재 32만 5천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이다. KT는 ‘메가TV’를 통해 영화 VOD, TV 다시보기, 유아/어린이 서비스영역에서 지상파방송을 비롯하여 HD 방송,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PS3 등 다양한 콘텐츠와 게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의 기타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약 2만 여 편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2008년에 약 15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LG데이콤은 12월 10일에 ‘MY LGtv’로 pre-IPTV 시장에 가세하였다. LG데이콤은 LG파워콤과 함께 2008년까지 20만 명의 가입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LG텔레콤·데이콤·파워콤 등 3개사가 공조한 TPS 사업부를 신설하여 IPTV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LG데이콤은 우선 3천 여 편에 불과한 IPTV 콘텐츠를 2008년 상반기까지 2만 여 편 정도로 확대한 다음 HD급 고화질 영화 및 다큐멘터리의 다수 확보로 명품서비스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G데이콤은 무작위적인 콘텐츠 확보가 아닌 실제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고객평가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요청받고 있다(<표 3> 참조).

이러한 pre-IPTV에 대응하여 SK텔레콤이 삼성전자, LG전자, CJ인터넷, 조인스닷컴, 판도라TV 등과 함께 365°C라는 DTV 포털을 결성하여 IPTV 시장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365°C는 모든 서비스 콘텐츠 업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데, 365°C는 VOD 서비스, 멜론의 TV 버전인 T멜론, 채팅 워킹룸의 T커뮤니티, 영상전화 회의, 메신저, SMS 전송, 전화번호부로 구성된 T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되며,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일부 유료 콘텐츠와 광고를 수익모

<표 3> 국내 pre-IPTV 서비스 제공 현황

	KT	Hanaro Telecom	LG Dacom
IPTV 브랜드	MegaTV	HanaTV	My LGtv
IPTV 제공 시기	2007.9.	2006.7.	2007.12.
IPTV 가입자 (2007.12.)	325,000	800,000	-

델로 삼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통신방송융합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 최대주주인 AIG-뉴브리지-TVG 컨소시엄의 지분 9,140만 6,249주(38.89%)를 총 1조 877억 원(주당 1만 1900원)에 인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분인수 심사와 정보통신부 인가 절차를 마쳤다.

IV. IPTV의 경제적 파급효과

1. IPTV 시장 규모 전망

ETRI는 2005년 IPTV 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 있으나, IPTV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08년 IPTV 상용화를 전제로 가입자 및 수익전망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새로 분석하였다[5]. 동 분석을 위해 GRI Research Korea에 의뢰하여 전국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가구주 및 배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 분포는 <표 4>와 같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패널의 37.5%가 IPTV 가입 의사가 있었는데, 이는 다시 실제 가입 확률(3점:

<표 4> IPTV 가입의향 조사 패널 구성

(단위: 명)

구분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계
서울	82	183	206	471
부산	16	52	80	148
대구	14	43	57	114
인천	15	48	63	126
광주	11	27	30	68
대전	13	27	33	73
계	151	380	469	1000

<자료>: ETRI, 2007.

51.5%, 4점: 63.0%, 5점: 86.7%)을 고려하면 전체 응답자의 21.9%가 IPTV에 가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가입자를 추정하였는데, 이때 IPTV 서비스는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것이며, 2007년 말 현재 pre-IPTV 가입자 1백만 가구를 고려하였다.

(그림 2)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IPTV 가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2008년에 220만 가구, 연평균(CAGR) 37.7%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496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한편 보수적으로는 2008년에 200만 가구 정도, 연평균(CAGR) 26.9%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329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한편 가입자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IPTV 시장규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규모 산정을 위해 IPTV 서비스 기본 가입비(30,000원), 월 기본료(10,000원), 월 평균 유료서비스 이용(5편), 유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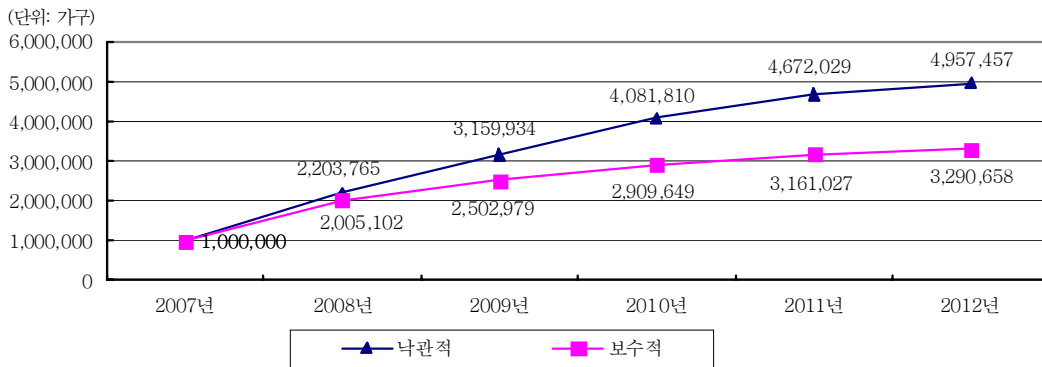
비스 이용료(2,300원/편) 등을 가정하였다.

국내 IPTV에 대한 사업자들의 매출은 월 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할 때, 2008년에 6,047억 원의 매출에서 2012년에는 1조 2,87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8년에 5,475억 원의 매출에서 2012년에는 8,5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표 6> 참조).

2. IPTV 투자 규모 전망

IPTV 관련 가입자 증가에 따른 소요 투자규모를 전망하기 위해서, 전문가 패널 8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PTV 제공을 위한 비용 산출을 위해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고, 고



<표 5> 국내 IPTV 가입자 전망(2008~2012년)

시나리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AGR
낙관적(가구)	1,000,000	2,203,765	3,159,934	4,081,810	4,672,029	4,957,457	37.7%
보수적(가구)	1,000,000	2,005,102	2,502,979	2,909,649	3,161,027	3,290,658	26.9%

<자료>: ETRI, 2007.

<표 6> 국내 IPTV 시장규모 전망(2008~2012년)

시나리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AGR
낙관적(백만 원)	604,684	843,948	1,080,763	1,223,090	1,287,587	20.8%
보수적(백만 원)	547,469	660,705	762,890	823,086	852,879	11.7%

<자료>: ETRI, 2007.

정비는 가입자 100,000명과 100개 채널 공급을 기준으로 headend, middleware, access network에 소요되는 비용, 변동비는 가입자 1명 당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headend, middleware, access network, CPE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하여 IPTV에 대한 투자규모를 추정해 보면, 낙관적인 경우에는 2008년에는 6,133억 원, 2012년까지 5년간 총 1조 9천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수적인 경우에는 2008년에 5,136억 원, 2012년에는 5년간 총 1조 1천억 원이 투자될 전망이다(<표 7> 참조).

3. 경제적 파급효과

IPTV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404개의 기본분류표[6]를 IPTV 사업을 중심으로 ① 농림수산물, ② 비정보통신 제조업, ③ 전기 및 전자기기, ④ 통신 및 방송기기(IPTV 기기), ⑤ 전력/가스/수도/건설, ⑥ 도소매/음식점/숙박/운수/보관, ⑦ 통신 및 방송(IPTV 서비스), ⑧ 금융/보험/부동산, ⑨ 정보서비스, ⑩ 문화오락서비스, ⑪ 공공행정/국방/교육/보건/사회 등의 11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서비스시장과 장비시장

고정비 (100,000명, 100채널기준)	
Headend	Encoder, Transcoder, Video Server, Core Network
Middleware	TCS, CAS or DRM Server, Browser, EPG
Access Network	DSLAM, Fiber Plant
Per-subscriber Costs (가입자 1명 당 발생)	
Headend	IPS, VOD Server, L3/L4 S/W
Middleware	Client License, Browser, Custom Player
Access Network	L2/L3 S/W
CPE	xDSL Modem, STB

IPTV 장비 단위 당 비용	
구분	단가
고정비(A)	106억 원
Headend	66억 원
Middleware	31억 원
Access Network	9억 원
변동비(B)	395,000
Headend	20,000
Middleware	25,000
Access Network	100,000
CPE	250,000

- 고정비: 100,000가입자마다 발생
- 변동비: 매가입자마다 발생

(그림 3) IPTV 제공을 위한 단위 투자비용

<표 7> 국내 IPTV 투자규모 전망(2008~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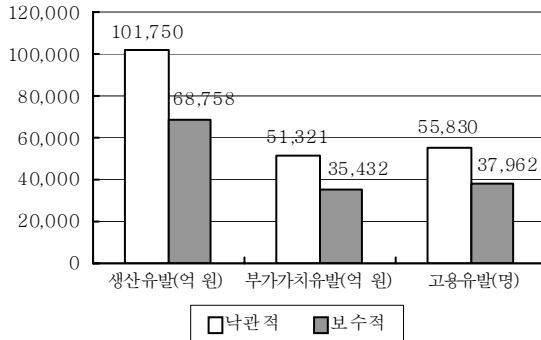
시나리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AGR
낙관적(백만 원)	613,287	473,086	459,541	296,736	144,544	1,987,196
보수적(백만 원)	513,615	249,661	203,035	120,494	61,804	1,148,610

<자료>: ETRI, 2007.

<표 8> IPTV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전망(2008~2012년)

시나리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AGR	
낙관적	생산유발효과(억 원)	18,516	19,400	22,381	21,570	19,883	101,750
	부가가치유발효과(억 원)	8,366	9,420	11,202	11,361	10,972	51,321
	고용유발효과(명)	9,919	10,561	12,271	11,973	11,166	55,890
보수적	생산유발효과(억 원)	16,063	13,156	13,756	13,183	12,599	68,758
	부가가치유발효과(억 원)	7,329	6,664	7,192	7,179	7,068	35,432
	고용유발효과(명)	8,623	7,234	7,622	7,378	7,105	37,962

<자료>: ETRI, 2007.



(그림 4) IPTV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에 대해 각각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IPTV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해 보면(〈표 8〉과 (그림 4) 참조), 낙관적으로는 2008~2012년의 5년간 IPTV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0조 1,750억 원, 고용효과는 5만 6천 명이며, 보수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는 6조 8천억 원, 고용효과는 3만 7천 명 정도로 전망된다.

V. 맺음말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등에 있어서 세계

● 용어해설 ●

IPTV: Multimedia services such as television/video/audio/text/graphics/data delivered over IP based networks managed to provide the required level of QoS/QoE, security, interactivity and reliability(ITU-T IPTV Focus Group, 2006. 7.)

Web 2.0: 모든 사람이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웹(web as platform) 환경으로서 기존 웹에서는 포털사이트처럼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수신만 하는 형태였으나 웹 2.0 환경에서는 제공되는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스스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고를 달리던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는 최근까지 초고속인터넷에서나 IPTV에서나 상당히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보급률에 있어서는 덴마크에(2006년 말 기준), 속도와 요금에 있어서는 일본에(2007년 4월 말 기준)에 1위 자리를 내주었으며, IPTV는 빠르면 2008년 6월이 되어야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VOD 중심의 pre-IPTV 서비스가 2007년 말로 100만이 넘어 국내 디지털 CATV와 이미 VOD 중심으로 IPTV를 제공하여 왔던 세계 주요 사업자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라 세계의 주목과 함께 미디어 시장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IPTV를 넘어 새로운 미디어 융합에 두어야 한다. 4G 이동통신, NGN 기반의 차세대 융합서비스, Web 2.0 TV 기반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임베디드 미디어 서비스 등을 고려한 정책과 규제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규제기관 개편이 완료되었으므로, 기존의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참여자들이 모여 발전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융합에 적합한 새로운 미디어 정책기조를 정립하고 IT 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総務省, 新競争促進プログラム2010, 2006. 9. 15.
- [2] 総務省 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関する研究会 最終報告書, 2007. 12. 6.
-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대체). www.moleg.go.kr
- [4] MRG, IPTV Global Forecast-2007 to 2011, 2007. 4.
- [5] ETRI,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산업전망 분석, 2007.
- [6]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2007.